



릴케의 사랑과 존재론적 소유

Liebe und ontologischer Besitz bei R. M. Rilke

저자 (Authors)	김상원 Sang Won Kim
출처 (Source)	독어교육 22 , 2001.12, 357-381(25 pages)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Deutschunterricht 22 , 2001.12, 357-381(2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Koreanische Gesellschaft fr Didaktik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40463
APA Style	김상원 (2001). 릴케의 사랑과 존재론적 소유. 독어교육, 22, 357-381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릴케의 사랑과 존재론적 소유

김 상 원*

【목 차】

1. 서론
 2. ‘보다 인간적인 사랑’과 여성과의 관계
 3. ‘대상 없는 사랑 Gegenstandlose Liebe’에 대한 비판 시도
 4. ‘소유하지 않는 사랑 Besitzlose Liebe’에 대한 비판 시도
 5.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1. 서론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작품 속에 나타난 사랑과 소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의 시 언어의 수많은 의미 형상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릴케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릴케의 존재론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과 관계되는 릴케의 고유한 세계관이 그의 작품의 개별적인 표현들 속에 함축적으로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t)는 자신의 릴케 에세이에서 작품 내재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릴케의 후기 작품인 『두이노의 비가 Duineser Elegien』를 읽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Vor einer derart kommunikationentfremdeten Dichtung entsteht die grundsätzliche Frage, wie weit sie noch verstanden sein will, wie weit sie verstanden werden kann, d. h. für uns: wie weit Interpretation noch erlaubt ist. Diese in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전공 강사

der Sache selbst liegende Schwierigkeit zeigt sich am eindeutigsten in der 5. Elegie, in der jede Sinnkonstruktion und jedes nachträgliche Brückenschlagen von Zeile zu Zeile unmöglich wäre, das die Bildassoziationen in ihrer unnachvollziehbaren Einmaligkeit und Situationsabhängigkeit einem völligen Belieben anheimgegeben sind. Methodisch möglich bleibt hier allein, den Hintergrund des Gestimmtseins, gleichsam die Tonart, die als einzige Einheit feststeht, deutlich zu machen. Aus dieser Einheit tauchen die einzelnen Zeilen zusammenhanglos und inselhaft auf; ihre Umstellung wäre durchaus denkbar.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이 차단된 작품 앞에서 이 작품이 얼마나 폭넓게 이해되어 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폭넓게 이해되어 질 수 있는가, 즉 우리에게 얼마나 폭 넓은 해석이 허용되어 있는 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작품 자체에 놓여있는 어려움은 5비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5비가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뒤늦게 행과 행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왜냐하면 추체법이 불가능한(unnachvollziehbare) 일회성과 상황 의존성 속에서 형상을 연상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 행들의 연결을 완전히 임의성에 맡겨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조율의 이면을, 즉 단일하게 확정되어 있는 음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이런 단일성 때문에 개별적 행들은 연관성 없이 섬처럼 고립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치를 바꾸어 보는 것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¹⁾

이와 같이 비가 해석의 어려움은 외관상으로 비추어지는, 개별적인 표현들 사이의 상호 비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고립된 표현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적 표현들의 위치 전환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곧 그녀가 표현들 상호간의 내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적 표현들의 상호 연관성의 이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릴케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 중에서 릴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최대의 작업 meine größte Arbeit’²⁾이라고 일컬어졌던 『두이노의 비가』에 수

1) Hannah Arendt und Günther Stern [Günter Anders]: *Rilkes Duineser Elegien*. In: *Materialien*. ("Materialien" bedeutet fortan: *Rilkes Duineser Elegien. Forschungsgeschichte*. Hrsg. Ulrich Fülleborn und Manfred Engel. Zweiter Band. suhrkamp taschenbuch materiali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2). S. 45f.

수끼끼처럼 전개된 릴케의 모든 관념에 대한 대담한 비판을 경험하게 된다. 홀트후젠(Hans Egon Holthusen)은 비가를 철학적 진술로 간주할 수 있다면 비가에 나타난 릴케의 관념은 모두가 오류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다양한 논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중 하나로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내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 릴케의 관념이 오류라는 홀트후젠의 주장은 ‘불가언성 Unsäglichkeit’과 ‘불가시성 Unsichtbarkeit’과 같은 표현이 릴케의 일원론적인 느낌에서 나온 ‘신적인 것의 명명 die Benennung des Göttlichen’으로서 간주된다는 견해를 근거로 한다.³⁾ 이 두 표현이 신과 같은 초인적인 전능함의 특징을 의미한다면, 홀트후젠의 진술은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의 표현으로만 간주된다면, 우리는 홀트후젠의 주장 속에서 신과 인간의 존재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의미가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만을 지시한다면 비가에 나타난 인간의 실존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아직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은, 인간 존재의 보다 높은 본질적인 단계, 즉 릴케의 존재론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비가가 릴케 자신의 ‘최대의 작업’이었던 것만큼 릴케의 작품해석의 어려움은 특히 비가와 관련해서 대부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릴케의 작품의 개별적 표현들의 외관상의 상호 비 연관성과 릴케의 존재론적 세계관이 『두이노의 비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릴케의 많은 개별적인 작품들이 상이한 형식과 주제 그리고 상이한 창작 시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릴케의 존재론적 세계관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로렌츠(Otto Lorenz)는 릴케의 작품들에 대한 작품 내적인, 그리고 작품 외적인 해석들의 이질성과 관련하여 작품 해석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는 릴케의 시적 표현들을 고찰해야 하며, 릴케의 시작품의 시적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릴케 자신

2) Rainer Maria Rilke: An Witold Hulewicz. BN 410 (BN bedeutet fortan: Briefnummer. Also “BN 410” bedeutet Briefnummer 410). In: Briefe (“Briefe” bedeutet fortan: Rainer Maria Rilke Briefe. Hrsg. Rilke-Archiv in Weimar. Frankfurt am Main: Insel 1980). S. 897.

3) Vgl. Hans Egon Holthusen: *Rilkes letzte Jahre*. In: *Materialien*. S. 143f.

의 증언과 설명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별 텍스트의 주제와 형식의 조건에 면밀한 주의를 요구한다.⁴⁾ 아렌트의 제시처럼 개별적 표현들의 위치전환 등과 같은 방식은 릴케 작품의 올바른 해석의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모색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개별 작품의 해석이 그 개별 작품의 내재적인 관점에서만 고려된다면 많은 경우에 그 작품 해석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릴케의 개별 표현들의 이해는 그 작품의 내재적인 개별 표현들의 상호 연관성과 더불어 릴케의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관련된 시적 표현이나 편지, 산문 형식의 글이나 그밖에 짧은 논고 등과 같은 텍스트들에 담겨 있는 의미 연관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주제인 ‘사랑과 존재론적인 소유’에서 ‘사랑’은 그의 존재론적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로서 그의 창작의 근본 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랑’과 릴케의 고유한 존재론적 세계관의 관계는 ‘소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의 논제 선정의 이유이다.

릴케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릴케의 많은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두이노의 비가』의 한 여성의 형상이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분석되는 과정에서 릴케의 본질적인 사랑이 ‘대상없는 사랑 *gegenstandlose Liebe*’이나 ‘소유하지 않는 사랑 *besitzlose Liebe*’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귀착되어 표현되고 또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숙한 사랑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해석자들의 표현은 자체적으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릴케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릴케의 다양한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들과 자기 증언 등을 통해서 그의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다 인간적인 사랑 *Menschlichere Liebe*’⁵⁾과 여성과의 관계

릴케의 ‘보다 인간적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탄에 잠긴 자

4) Vgl. Otto Lorenz: *Schweigen in der Dichtung*: Hölderlin-Rilke-Celan, Studien zur Poetik deiktisch-elliptischer Schreibweisen.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9. S. 129f.

5) Rilke: An Franz Xaver Kappus. BN. 24. S. In: Briefe. S. 79.

이면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에 도달한 여성의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대답 되어질 수 있다.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형상들을 우리는 릴케의 작품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소설 『말테의 수기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여성의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Was ist anders der Portugiesin geschehen: als daß sie innen zur Quelle ward? Was dir, Heloise? was euch, Liebenden, deren Klagen auf uns gekommen sind: Gaspara Stampa; Gräfin von Die und Clara d'Anduze; Louise Labbé, Marceline Desbordes, Elisa Mercœur? Aber du, arme flüchtige Aïssé, du zögertest schon und gabst nach. Müde Julie Lespinasse. Trostlose Sage des glücklichen Parks: Marie-Anne de Clermont.

그 포르투갈 여인에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 그녀의 내부에서 원천이 되었다. 엘로이스 당신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의 슬픔이 우리에게 엄습해왔습니다. 가스파라 스타파, 디 백작부인, 클라라 당뒤즈, 루이 라베, 마르셀린 데스보르드, 엘리사 메르코어,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가련한 단명의 에세, 그대는 이내 주저하고는 굴복해버렸습니다. 지쳐버린 줄리 레스파나스, 행복한 공원의 침울한 전설, 그것은 마리 안네 드 클레르몽입니다.⁶⁾

릴케는 여성들 속에서 삶은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바로 근원적으로 보다 더 성숙한 인간 유형으로 간주하며 남성들 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들로 간주한다. 릴케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고통과 비하 속에서 견디어 낸 이

6) Rilke: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In SW. VI. S. 925. (Vgl. August Stahl: Rilke-Kommentar. Zu den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zur erzählerischen Prosa, zu den essayistischen Schriften und zum dramatischen Werk. S. 240: 포르투갈의 여인은 마리아나 알코포라도를 의미하며, '내부에서 원천이 되었다'는 그녀의 사랑의 편지가 그녀가 동경하는 사랑의 산물이며 선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스파라 스타파는 이탈리아 여자 시인이며, 그녀의 형상은 두이노의 비가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녀는 26세의 나이로 콜랄티노 디 콜랄토 백작과 사랑에 빠졌으나, 백작은 3년 뒤 그녀를 떠난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한다. 그밖의 여인들 역시 불행한 사랑을 한 형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런 여성들의 인간다움은 분명해진다고 본다. ‘여성 die Frau’은 ‘남성적인 것의 반대 개념 einen Gegensatz Männliche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인간 den weiblichen Menschen’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Mensch zu Mensch’의 관계로 이해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수행하는 사랑은 보다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다. ‘보다 인간적인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 보호하고 경계 지우는 데 그 본질이 있는 사랑과 유사할 것이다.⁷⁾

진실한 현실에 대한 릴케의 체험은 그의 작품 속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릴케는 그의 작품을 그의 진정한 현실 체험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릴케의 여성은 인간적인 삶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거만하고 성급하게 과소 평가하는 남성보다도 근본적으로 성숙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⁸⁾ 릴케의 시 창작에 중요하다.

릴케는 남성들의 특징과 구별하는 여성의 특징은 창작의 체험과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한 소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das tiefste Erleben des Schaffenden ist weiblich-, denn es ist empfangendes und gebärendes Erleben.

창작하는 자의 심오한 체험은 여성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여 잉태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⁹⁾

사랑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내면에서 다른 것, 즉 그들의 실존을 위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된다. 이 새로운 것이 바로 앞으로 살펴볼 진정한 의미의 소유와 관계가 있다.

3. ‘대상 없는 사랑 Gegenstandlose Liebe’에 대한 비판 시도

『말케의 수기』에서 이미 열거된 사랑하는 자들 중에 하나인 가스파라 스타파

7) Vgl. Rilke: An Franz Xaver Kappus. BN. 24. S. 78f.

8) Vgl. Rilke: An Franz Xaver Kappus. BN. 24. In: Briefe. S. 79.

9) Rilke: An ein junges Mädchen. BN. 31. In: Briefe. S. 104.

(Gaspara Stampa)는 이탈리아의 여자시인이다. 이 여인의 형상을 릴케는 두이노의 비가 중 제 1비가에서 사랑하는 자의 보다 인간적인 사랑의 고양된 예로 사용하고 있다. “가스파라 스타파는 26세의 나이로 콜라티노 디 콜랄토라는 백작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백작은 3년 뒤 그녀를 떠났지만 그녀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백작에 대한 불행한 사랑은 그녀의 시(Rime d'amore)와 그녀의 섬세한 일기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¹⁰⁾

제 1비가에 나타난 가스파라 스타파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 왔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사랑은 원칙적으로 버림받은 자의 사랑 Liebe ist prinzipiell Liebe der Verlassenen”¹¹⁾이며, 이것은 곧 ‘대상 없이 사랑 속에 있는 상황 die Situation des objektlos In-der-Liebe-seins’¹²⁾으로 간주된다. 연인이 떠났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없이 혼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독하다는 것은 가스파라 스타파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기될 수 있는 죽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떠나가 버린, 사랑의 대상과 관련된 상이한 주장들을 다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

Damit muß seine Liebe intransitiv werden, da der Gegenstandsbezug des Gefühls die geläufige Trennung von Ich und Welt noch voraussetzt und solche Trennung eben jenseits der Bewußtseinsebene keine Bedeutung mehr hat.

이것으로 그의 사랑은 비지향적(intransitiv)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느낌과 대상과의 관계는 흔히 알려져 있는, 자아와 세계와의 분리를 여전히 전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의식되지 않는 바로 그 곳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¹³⁾

10) August Stahl: *Rilke-Kommentar. Zu den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zur erzählerischen Prosa, zu den essayistischen Schriften und zum dramatischen Werk. S. 240: (Gaspara Stampa: 1523-1554).

11) Hannah Arendt, Günther Stern [Günther Anders], *Rilkes Duineser Elegien*, S. 55.

12) Ebd. S. 57.

13) Peter Krumme: *Eines Augenblickes Zeichnung. Zur Temporalität des Bewußtseins in Rilkes Duineser Elegien*. Diss. Würzburg: Königshausen u. Neumann 1988. S. 120.

Es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ß die Vorstellung des von keinem “Gegenüber” irgendwelcher Art bestimmten Offenen den Bildraum darstellt, innerhalb dessen in den späten Dichtungen der Preis der zu lernenden gegenstandlosen Liebe als orphische Verkündung wird.

그 어떤 유형의 대상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채 열려져 있다는 생각이 형상공간을 묘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공간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대상 없는 사랑의 참미는 후기 시에서 오르페우스의 계시처럼 언급된다.¹⁴⁾

‘비지향적(intransitiv)이어야만 하는 사랑’과 ‘배울 수 있는, 대상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연인의 물리적인 부재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랑이란 특정한 사랑의 대상에게 향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랑이란 상상되어질 수 없다. 사랑의 대상인 연인이 가스파라 스타파의 경우처럼 사랑하는 이의 곁을 떠나거나, 또는 연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린 연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한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는 이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의 대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랑의 느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릴케에게서 사랑은 항상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릴케의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대상의 물리적 부재와 의식 속에서의 대상의 부재와 구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연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는 이를 떠난다 할지라도, 연인은 사랑하는 이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연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대상을 영원히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느낌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떠났다면 사랑하는 이의 삶의 무게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이의 내면에서 잉태되어질 무엇인가 새로운 것, 즉 사랑하는 자의 실존을 위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대상인 것이다.

14) Hermann Kunisch: Rainer Maria Rilke. Dasein und Dichtung. Zweite, neu gefaßte und stark erweiterte Aufl. Berlin: Dunkcker & Humbolt 1975. S. 451.

4. '소유하지 않는 사랑 *Besitzlose Liebe*'에 대한 비판 시도

떠난 이에 대한 사랑은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소유하지 않는 사랑 *besitzlose Liebe*'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때 이들이 주장하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 마치 릴케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인간적인 사랑'인 것처럼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한 비판에 앞서 우선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세 사람(Justus Schwarz, Hannah Arendt, Otto Friedrich Bollnow)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유의 개념과 관련된 릴케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다 인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슈바르츠에 의해 '고유한 사랑 *Eigentliche Liebe*'으로 표현된다: "다른 이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랑이 비로소 고유한 사랑이다. *Die nicht um Besitz des Anderen bemühte Liebe ist erst die eigentliche Liebe.*"¹⁵⁾ 이 표현을 바꾸어 말한다면 소유하려는 사랑은 '고유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위에 인용된 표현은 사랑의 대상이 소유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슈바르츠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슈바르츠가 사용하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란 표현에서 소유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Wer besitzen will, verliert, und wer nicht zu haben bereit ist, der gewinnt. -
Doch hier muß unser Fragen beginnen. Wenn es gleich wahr sein mag, daß der Besitzwille des Ich sich rächt in der Unwirklichkeit des Erlebens, ist darum schon nach einer innerweltlichen Gerechtigkeit dem zur Besitzlosigkeit sich Entschließenden die Gnade bereitet? Wie kann diese Hingabe an die unhaltbaren Wirklichkeiten geschehen, dies sich den Schmerzen "gelöst" ergeben "in ihr gelöstes Haar"? Nicht nur, daß diese Hingabe an die Schmerzen die eigenen Möglichkeiten des Menschen zu übersteigen scheint, - sondern wenn ein solches Umfassen des Todhaften möglich wäre, würde sich der Sinn dieses Verhaltens verkehren. Nun haldelte es sich nicht mehr um Abspannung

15) Justus Schwarz: Die Wirklichkeit des Menschen in Rilkes letzten Dichtungen. In: Materialien. S. 34.

des Sicherungswillens, sondern um ein Greifen nach Besitz in anderer Richtung. Damit wird Rilkes Lehre zweideutig. Die Bereitschaft zur todhaften Wirklichkeit erscheint als ein wie immer motiviertes Bestreben um Sicherung des Lebens in einer ungewohnten, umgekehrten Richtung. - Diese Zweideutigkeit leuchtet besonders eindringlich auf in der Lehre von der besitzlosen Liebe. Ist nicht bei ihr beteiligt ein Bemühen, dem Schicksal zu entkommen auf Grund der Einsicht, daß "Bleiben nirgends" ist?

소유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소유하지 않으려는 자는 얻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어야만 한다. 자아의 소유의지가 체험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사실이라면 내적 세계의 정당성에 따라 소유하지 않기를 결심한 자에게 과연 은총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멈출 수 없는 현실에 몰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고통의 흠어진 머리카락 속으로', 즉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에 몰입할 수 있을까? 고통에 몰두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죽음과 같은 것을 포용할 수 있기로 하다면, 이런 태도의 의미는 바뀔지도 모른다. 이제 안전 하려는 의지를 완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른 방향에서 소유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으로 릴케의 가르침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죽음과 같은 현실에 대비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정 반대의 방향에서 삶을 안전하게 하려는, 늘 동기가 주어지는 노력으로서 나타난다. 이 이중성은 특히 소유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분명해진다. "머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통찰을 근거로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¹⁶⁾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서 소유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소유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소유하지 않으려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바로 소유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 소유의 대상은 물리적 대상이다. 이러한 견해는 위에 제시된 두 번째 질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멈출 수 없는 현실들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현실들'은 '지속하지 않는 물리적 사물세계 die vergehenden physischen Dingwelten'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슈바르츠는 고유한 사람을 '머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통찰을 근거로 '익숙하지 못한

16) Ebd. S. 35.

정 반대의 방향에서 삶을 안전하게 하려는 동기가 늘 주어지는 노력'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모두가 기피하는 고통 속에서 삶을 안전하게 하려는 노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슈바르츠에게서 일반적인 사랑, 즉 우리에게 익숙한 잘못된 사랑은 물리적인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려는 노력이다. 반면에 잘못된 사랑의 정반대인 익숙하지 못한 곳에서의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 즉 물질적 대상을 소유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아렌트의 '버림받은 자의 사랑'과 같은 조건하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 버림받은 자의 고독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인과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ls Situation haftet sie [die Liebe] nicht an der einzelnen Gelegenheit und der einzelnen geliebten Person, die nur Anlaß ist; sie ist auch nicht verstanden als ein Gefühl neben anderen. Liebe übersteigt und vergißt zugleich die geliebte Person, da sie mehr meint als den zufällig Einzelnen, und ihr Horizont verstellt wird durch die Nähe des Geliebten (»Ach, sie verdecken sich nur mit einander ihr Los.« 1. El.). Liebe ist nur in dieser Verlassenheit: freigegeben vom Geliebten in die Weite ihres eigenen Horizontes kann sie Organon werden für das Verständnis der Weltbezüge. Dabei bleibt sie völlig in ihrer Verlassenheit und Weltentfremdung. Denn die Welt, die der Liebe offensteht, ist eine grundsätzlich andere als diejenige, die sich uns im täglichen Hier und Jetzt natürlich darbietet. Sie ist Welt in kosmologisch-hierarchischem Verstande, deren obere Schichten Rilke terminologisch »Ränge« und »Ordnungen«.

사랑은 상황으로서 단지 동기일 뿐인 하나의 연인과 하나의 계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란 다른 것들과 더불어 생겨나는 어떤 감정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연인을 넘어서는 것이고 동시에 연인을 잊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연히 혼자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며, 그리고 사랑의 지평은 연인에게 다가감으로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 연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운명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사랑은 이런 고독 속에서만 존재한다: 연인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지평의 광대함으로 나간다면 사랑은 세계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때 사랑은 완전히 고독할 때 그리고 세계와 소원해질 때 머무른다. 왜냐하면 사랑 앞에 열려 있는 세계는 매

일같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우주론적으로 위계가 정연한 오성 속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의 상충부를 릴케는 전문용어로 위계와 질서라고 한다.¹⁷⁾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와 연인이 함께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지평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유한 사랑은 고독 속에서만 존재한다, 즉 여기에서의 고독은 물리적인 거리감이다. 이렇게 대상과의 거리감은 소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버림받은 자의 고독한 사랑은 곧 소유하지 않는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연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 사랑의 부정적 조건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고독을 지켜 주는 함께 함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연인들이 서로의 물리적 대상과 함께 있고 없느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연인들의 물리적 거리와는 무관하게 서로의 고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③ 물리적 대상과 관계 있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견해는 볼노브에게서도 발견된다.

…… in der Bewahrung der Freiheit des anderen kann eine echte Liebe beständig bleiben. Darum heißt es hier: weil ich niemals dich anhiebt, halt ich dich fest. Nur im-Nicht-besitzen-wollen kann sie behalten.

다른 이의 자유를 지켜 줄 때 진정한 사랑은 항상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너를 결코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만 진정한 사랑은 유지될 수 있다.¹⁸⁾

‘소유하지 않는 사랑’과 ‘고독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소유하지 않고자 함’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랑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이해된다. 연인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연인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물리적으로는 소유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17) Hannah Arendt, *Rilkes Duineser Elegien*, S. 55.

18) Bollnow, Otto Friedrich: *Rilke. 2., erweiterte Aufl.*, Stuttgart: W. Kohlhammer 1966. S. 204.

한다.

그러나 릴케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갖는 소유의 의미는 연인을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릴케에게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연인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인을 재산처럼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릴케가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Sie sagen mein, wie manchmal einer gern
den Fürsten Freund nennt im Gespräch mit Bauern,
wenn dieser Fürst sehr groß ist und - sehr fern.
Sie sagen mein von ihren fremden Mauern
und kennen gar nicht ihres Hauses Herrn.
Sie sagen mein und nennen das Besitz,
wenn jedes Ding sich schließt, dem sie sich nahn,
so wie ein abgeschmackter Charlatan
vielleicht die Sonne sein nennt und den Blitz.
So sagen sie: mein Leben, meine Frau,
mein Hund, mein Kind, und wissen doch genau,
daß alles: Leben, Frau und Hund und Kind
fremde Gebilde sind, daran sie blind
mit ihren ausgestreckten Händen stoßen.
Gewißheit freilich ist das nur den Großen,
die sich nach Augen sehnen. Denn die Andern
wollens nicht hören, daß ihr armes Wandern
mit keinem Dinge rings zusammenhängt,
daß sie, von ihrer Habe fortgedrängt,
nicht anerkannt von ihrem Eigentume
das Weib so wenig haben wie die Blume,
die eines fremden Lebens ist für alle.
그들은 나의 라고 말합니다. 농부와의 대화에서
어떤 이가 제후를 친구라고 부르듯이 말합니다,
이 제후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먼 곳에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낯선 성벽에 대해 나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을 전혀 모르지요.
 그들과 가까워지는 모든 사물이
 단혀짐에도
 돌팔이 의사가
 태양의 존재와 번개를 명명하듯 그렇게
 그들은 나의 라고 말하고 소유라고 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나의 아내,
 나의 개, 나의 아이 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삶, 아내, 개 그리고 아이, 이 모든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내민 양손에 닿는
 낯선 형상들이라는 것을.
 이것은 눈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에게만큼은
 물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가련한 방랑이
 주변의 어떤 사물과도 관계없음을,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의해서 떠 밀려나고,
 자신이 소지한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모두에게 어떤 낯선 삶의 꽃처럼
 그들은 그렇게 아내를 조금만 소유하고 있음을.¹⁹⁾

어떤 한 사람이 제후가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낯선 제후를 소유격 '나의'를 가지고 명명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제후를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제후가 낯선 이 듯이 '나의 삶, 나의 아내, 나의 개, 나의 아이'와 같은 표현에서 '삶, 아내, 개 그리고 아이'는 본질적으로 낯선 형상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형상들을 영원히 소유물로 간직할 수 없으며, 그 형상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경우에 소유 대명사를

19) Rilke: Das Buch von der Pilgerschaft. Das Stundenbuch. In: SW. I. S. 338.

올바로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 ‘아내’, ‘개’ 그리고 ‘아이’와 같은 물리적 대상이 소유의 대상일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비록 아이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소유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다루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릴케의 한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Wenn Sie nun vor sich selber erschrecken, indem Sie gewahr werden, wie Ihr Wesen an dem einaml errungenen Geschöpf zügellos und furchtbar wird und jenem zur Qual -, so mögen Sie versuchen, sich da- wider vorzustellen, daß es ein Erungenhaben und Besitzen eines Menschen, so, daß man ihn dann zum eigenen (oft so verhängnisvoll bedingten) Genuß gebrauchen dürfte, ja: daß es ein Gebrauchen eines Menschen nicht gibt, nicht geben darf, nicht geben kann,- ...

언젠가 노력해서 얻은 창조물에 대한 당신의 본질이 어떻게 자제심을 잃게 되고 섬뜩해지며 그리고 고통이 되는지 알게 되면서, 당신이 당신 자신 앞에서 놀라게 된다면, 언젠가 노력하여 한 인간을 소유하고 (종종 그렇게 숙명적으로 제한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해도 좋다는 것과는 반대로 상상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용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²⁰⁾

릴케는 인간의 소유와 관련하여 인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 ‘보다 인간적인 사랑’인 것처럼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란 표현을 물리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릴케에게서 소유의 개념은 사물이나 사람과 같은 물리적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소유의 개념은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유발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소유하고자 함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다.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의식에서 유발되는 결핍의 충족을 갈망하는 존재자이다. 이런 불완전함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세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의식의 양극성(Polarität des Bewußtseins)과

20) Rilke: An E. M. BN. 369. In: Briefe. S. 795.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유하고자 함 *Besitzen-wollen*’은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의 의식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의 ‘소유하지 않고자 함 *Nicht-besitzen-wollen*’은 사랑하는 자의 불완전성(*Unvollständigkeit*)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5. 결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전제로 하지만 이 대상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우리가 대상을 소유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릴케의 작품 속에 자주 반영되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Die Kindheit ist das Reich der großen Gerechtigkeit und der tiefen Liebe. Kein Ding ist wichtiger als ein anderes in den Händen des Kindes. Es spielt mit einer goldenen Brosche oder mit einer weißen Wiesenblume. Es wird in der Ermüdung beide gleich achtlos fallen lassen und vergessen, wie beide ihm gleich glänzend schienen in dem Lichte seiner Freude. Es hat nicht die Angst des Verlustes. Die Welt ist ihm noch die schöne Schale, darin nichts verloren geht. Und es empfindet als sein Eigentum Alles, was es einmal gesehen, gefühlt oder gehört hat. Alles, was ihm einmal begegnet ist. Es zwingt die Dinge nicht, sich anzusiedeln. Eine Schar dunkler Nomaden wandern sie durch seine heiligen Hände wie durch ein Triumphtor. Werden eine Weile licht in seiner Liebe und verdämmern wieder dahinter; aber sie müssen Alle durch diese Liebe durch. Und was einmal in der Liebe aufleuchtete, das bleibt darin im Bilde und läßt sich nie mehr verlieren. Und das Bild ist Besitz. Darum sind Kinder so reich.

어린 시절은 심오한 사랑의 제국이고 위대한 정의의 제국이다. 어린아이의 손에서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이는 황금 부러치나 하얀 들꽃을 가지고 논다. 지치면 아이는 이 두 장난감을 생각없이 던져 버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그의 기쁨의 광채 속에서 얼마나 빛났던 지를 잊어버

린다. 아이는 잃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세계는 그에게 아직 아무 것도 잃지 않은 아름다운 겹겹과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언젠가 보고 느끼고 들었던 모든 것, 즉 그가 언젠가 만났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느낀다. 이 아이는 정작한 사물들에게 억지부리지 않는다. 이 사물들은 한 무리의 유목민을 승리자에 의한 것처럼 그들의 성스러운 손으로 바꾸어 버린다. 한순간 그의 사랑 속에서 빛이 되었다가 다시 저 너머로 어두어진다. 하지만 사물들은 모두 이런 사랑을 통과해야만 된다. 언젠가 사랑 속에서 환하게 비쳤던 것은 형상 속에 머무르며 더 이상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상이 곧 소유인 것이다.²¹⁾

어린아이의 장난감 놀이는 놀이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놀이에서 아이의 내면에 일어나는 기쁨의 광채,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 속에 간직하듯이 소유물처럼 아이에게 간직된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얻는 빛나는 체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릴케의 한 단편소설의 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소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체험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 denn wir besitzen von der Vergangenheit nur das, was wir lieben. Und wir wollen alles Erlebtes besitzen.”²²⁾

우리는 체험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Und wie Früchte sind wir. Hoch hangen wir in seltsam verschlungenen Ästen und viele Winde geschehen uns. Was wir besitzen, das ist unsere Reife und Süße und Schönheit.

우리는 열매와 같다. 우리는 이상하게 엉켜있는 나뭇가지들 사이에 높이 걸려있다. 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부딪친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성숙이고 달콤함이며 아름다움이다.²³⁾

연인은 사랑의 방향이며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다. 반면에 소유의 대상은 사랑

21) Rilke: *Über Kunst*. In: SW V. S. 429f.

22) Rilke: *Zwei Prager Geschichten*. In: SW. IV. S. 98.

23) Rilke: Notizen zur Melodie der Dinge. Notiznummer: XXXIX. In: SW. V. S. 425.

을 통해서 얻게 되는, 대상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며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획득되는 성숙한 자의식이다.

이와 같이 소유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는 릴케에게서 ‘보다 인간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고독 속에서의 사랑은 ‘보다 인간적인 사랑’을 위하여 연인들이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연인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고독을 지켜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보다 인간적인 사랑’은 연인들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릴케가 그의 편지에서 인용하는 수녀의 사랑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사랑은 더 이상 그대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지 않다.”²⁴⁾ 그러므로 ‘함께 있는가 Beisammensein’ 아니면 ‘고독하게 혼자 있는가 Alleinsein’은 연인들 사이의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할 뿐 그들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연인들 각자의 ‘홀로 있음 Alleinsein’, 즉 고독은 ‘멋지게 이웃한 동거 wundervolles Nebeneinanderwohnen’²⁵⁾이다. 릴케는 자기의 아내와 로마에 체류할 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llein, nur [mit] meiner Frau in der Nachbarschaft, die auch arbeitete, so daß wir uns gar nicht täglich sahen, aber doch einander halfen.

혼자서, 즉 일하면서 이웃하고 있는 내 아내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도왔다.²⁶⁾

릴케가 말하는 사랑은 곧 고독을 의미한다:

Die Frauen leiden: lieben heißt allein sein,
und Künstler ahnen manchmal in der Arbeit,
daß sie verwandeln müssen, wo sie lieben.

여자들은 괴로워하고 있다: 사랑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4) Rilke: An Annette Kolb. BN. 149. In: Briefe. S. 313. (Meine Liebe hängt nicht mehr davon ab, wie du mich behandelst.)

25) Rilke: An Emanuel von Bodman. BN 9. In: Briefe. S. 29.

26) Rilke: An Karl von der Heydt. BN 46. In: Briefe. S. 120f.

그리고 예술가들은 가끔은 작업 속에서 예감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곳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을.²⁷⁾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음 *allein sein*’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대상과의 공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릴케에게서 고독이란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의식 속에서의 만남이다. 그래야만 고독 속에서, 즉 사랑하는 자의 의식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스런 대상과의 만남, 즉 사랑은 우리 모두 배워야만 하는 일종의 능동적인 작업이다. 릴케는 그의 처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젊은이들은 사랑할 때 자신들이 초보자이고 삶에 서투른 자이며 사랑의 훈련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그들은 사랑을 배워야만 한다. Sie [junge Menschen] müssen, wenn sie lieben, nicht vergessen, daß sie Anfänger sind, Stümper des Lebens, Lehrlinge in der Liebe, müssen Liebe lernen ...”²⁸⁾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이 사랑을 배우고 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즉 일을 통해서 얻은 소유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소유한 것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소멸은 새로운 소유를 위한 가능성이다. 어린아이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만났던 모든 것을 간직하듯이 우리는 잃어버리고 얻으면서 소유를 유지한다. 우리가 체험한 것은 새로운 체험을 위한 토대가 되며,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체험을 한다. 즉 이것은 곧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고 이 체험은 보다 더 높은 존재의 단계를 체험하기 위한 밑거름인 것이다. “사랑은 개별자에게 성숙하기 위한, 즉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되기 위한 고상한 동기이다. ... es[Lieben] ist ein erhabener Anlaß für den Einzelnen, zu reifen, in sich etwas zu werden ...”²⁹⁾ 여기서 성숙은 보다 높은 존재의 단계의 체험을 의미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릴케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며,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릴케의 사랑은 소유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

27) Rilke: Requiem. In: SW. I. S. 655.

28) Rilke: An Friedrich Westhoff. BN. 23. In: Briefe. S. 73f.

29) Rilke: An Franz Xaver Kappus. BN. 24. In: Briefe. S. 76.

하는 것은 항상 보다 높은 존재의 단계로서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소유이며, 현실적인 소유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다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는 사랑이 바로 '보다 인간적인 사랑'이다.

참고문헌

1. Primärliteratur

- Rilke, Rainer Maria: *Briefe*. 2 Bde. 1. Band: 1896 bis 1919. 2. Band: 1919 bis 1926. Hrsg. v. Horst Naleski. Frankfurt am Main und Leipzig: Insel 1991. (Übertragung französischer Briefe und Briefpassagen von Heidrum Werner. Übertragung russischer Briefpassagen von Ulrike Hirschberg).
- Rilke, Rainer Maria: *Briefe*. Hrsg. vom Rilke-Archiv in Weimar. In Verbindung mit Ruth Sieber-Rilke besorgt durch Karl Altheim. 14. - 15. Tausend 1980. Wiesbaden: Insel 1950.
- Rilke, Rainer Maria: *Sämtliche Werke*. 7 Bde. Hrsg. vom Rilke-Archiv. Frankfurt am Main und Leipzig: Insel 1955-1997.

2. Sekundärliteratur

- Bollnow, Otto Friedrich: *Rilke*. 2., erweiterte Aufl., Stuttgart: W. Kohlhammer 1966.
- Kreutz, Heinrich: *Rilkes Duineser Elegi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50
- Krumme, Peter: *Eines Augenblickes Zeichnung*. Zur Temporalität des Bewußtseins in Rilkes Duineser Elegien. Würzburg: Königshausen u. Neumann 1988.
- Kunisch, Hermann: *Rainer Maria Rilke. Dasein und Dichtung*. - 2., neu gefaßte und stark erw. Aufl. Berlin: Duncker & Humbolt 1975.
- Lorenz, Otto: *Schweigen in der Dichtung: Hölderlin-Rilke-Celan, Studien zur Poetik deiktisch-elliptischer Schreibweisen*.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89.
- Rilkes 'Duineser Elegien'. *Forschungsgeschichte*. Hrsg. Ulrich Fülleborn und

Manfred Engel. Zweiter Band.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2.
(suhrkamp taschenbuch materialien).

Stahl, August: *Rilke-Kommentar. Zu den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zur erzählerischen Prosa, zu den essayistischen Schriften und
zum dramatischen Werk. München: Winkler 1979.

Zusammenfassung

Liebe und ontologischer Besitz bei R. M. Rilke

Kim, Sang-Won

Die Analyse von Rilkes Szenario von Wirklichkeit und Bewußtsein nimmt ihren Ausgangspunkt bei der Problematik der textimmanenten Kommunikationsmöglichkeit in den Werken Rilkes. Rilkes vom Alltagsverständnis stark abweichender Sprachgebrauch erzeugt eine konflikthafte Lektüre und verweist auf die Distanz zwischen Dichter und Leser. Die Problematik der Sinnkonstruktion in der Dichtung ergibt sich aus der Ungewöhnlichkeit der Begriffe und Bilder Rilkes, die den Leser besonders bei der Lektüre der Elegien den Konflikt erfahren läßt. Die scheinbare Zusammenhanglosigkeit zwischen den Wörtern und zwischen den Zeilen auf der Oberfläche der Sprache ist über den Umweg eines inneren Sinnzusammenhangs zu überbrücken, der durch vergleichende Lektüre zentraler Begriffe in Rilkes Werk rekonstruiert wird.

Um die Problematik des Verständnisses der Werke Rilkes zu umreißen, wird im Zusammenhang mit dem Begriff der Liebe bei Rilke untersucht, wie Rilkes Sprache weltanschaulich fundiert ist. Dabei wird versucht, das Verständnis der Korrelation zwischen dem Sprachgebrauch Rilkes und seiner Weltanschauung zu verdeutlichen.

Rilkes Ideal der Liebenden sieht die Möglichkeit zur Überwindung der Entsetzlichkeit nicht in der Verschmelzung. Die Rilkeforschung operiert hier vielfach mit den Begriffen der besitzlosen Liebe bzw. der gegenstandslosen Liebe, deren Widersprüchlichkeit aufgezeigt wird.

Die Liebe von Gaspara Stampa, die in der ersten Elegie erscheint, wurde im Zusammenhang mit der Bezogenheit auf den Liebesgegenstand schon von vielen Interpreten unterschiedlich gedeutet: "Liebe der Verlassenen", "gegenstandslose Liebe", "intransitive Liebe", etc. Dabei finden wir, daß die Interpreten nur die

Bezogenheit auf die physischen Abwesenheit der geliebten Person berücksichtigt haben. Aber die Liebe bei Rilke hängt nicht davon ab, ob der physische Liebesgegenstand vorhanden ist. Die Liebe ist ein Gefühl der Zuneigung zu dem bestimmten Liebesgegenstand. Also ist die Liebe ohne dessen Gegenstand unvorstellbar. Obwohl eine geliebte Person als ein Liebesgegenstand die liebende Person wie bei Gaspara Stampa verläßt oder schon gestorben ist, ist der Liebesgegenstand noch im Bewußtsein der liebenden Person insofern, als die liebende Person immer noch die verlassene geliebte Person liebt. Bei Rilke ist der Liebe immer ein Gegenstand vorausgesetzt. Also müssen wir bei der Untersuchung des Liebesbegriffs bei Rilke die Abwesenheit des physischen Liebesgegenstands von der Gegenstandslosigkeit im Bewußtsein unterscheiden, weil die geliebte Person im Bewußtsein der liebenden Person immer noch die oder der Geliebte ist, obwohl die geliebte Person irgendwie die liebende Person verlassen hat.

Diese Liebe der Verlassenen wird von vielen Interpreten auch für "besitzlose Liebe" gehalten. Dabei scheint "die besitzlose Liebe" die menschlichere Liebe bei Rilke zu repräsentieren. Die "besitzlose Liebe" schließt doch in sich eine Widersprüchlichkeit. Denn die "besitzlose Liebe" setzt auch den physischen Liebesgegenstand voraus. Das heißt, der Liebesgegenstand ist zugleich der Gegenstand des Besitzes. Bei Rilke ist der Besitz des physischen Gegenstandes nicht möglich. Diese Ansicht ist in der ontologischen Weltanschauung Rilkes begründet: "Bleiben ist nirgends." In diesem Sinne kann es Nonsense sein, daß wir den Ausdruck "der besitzlosen Liebe" in der Bezogenheit auf den physischen Liebesgegenstand verwenden, als ob "die besitzlose Liebe" die menschlichere Liebe wäre. Denn es ist nicht möglich, daß wir etwas, was wir eigentlich nicht besitzen können, nicht besitzen wollen.

Die Ansicht, daß die liebende Person nicht die geliebte Person als physischen Liebesgegenstand besitzen kann, bedeutet jedoch nicht, daß sie gar keinen Gegenstand besitzen kann, sondern daß der Begriff des Besitzes nicht in der Bezogenheit auf den physischen Gegenstand verstanden werden darf; vielmehr

muß bei Rilke in diesem Zusammenhang der innerliche Zustand der liebenden Person berücksichtigt werden, der sich aus der Liebe des Gegenstandes ergibt.

Die Liebe ist "eine tägliche Arbeit", durch die wir unsere Entsetzlichkeit überwinden müssen, die sich aus dem Bewußtsein der vergehenden Wirklichkeit ergibt. Also ist die Entsetzlichkeit wie die unzählbaren Rätsel, die wir täglich lösen müssen. Obwohl wir ein Rätsel gelöst haben, bedeutet dies nicht, daß die von uns gefundene Lösung uns für immer gehört. Trotz der Unsicherheit der Lösung wird die Lösung selbst im Falle ihres Verlustes zu einer Grundlage für die nächste Möglichkeit auf dem Wege zur unendlichen Möglichkeit als dem sicheren Ziel. Also können wir einen wirklichen Besitz im Kreislauf zwischen Verlust und Gewinn verstehen. Durch die dialektischen Wiederholung werden wir immer reifer. Das ist ein wirklicher Besitz.

핵심어

대상 없는 사랑
소유하지 않는 사랑
보다 인간적인 사랑
존재론적 소유
홀로있음

Stichwörter

Gegenstandlose Liebe
Besitzlose Liebe
Menschlicherere Liebe
Ontologischer Besitz
Alleinsein